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느헤미야기 8:2-4.5-6.8-10 | 제2독서 | 코린도1 12:12-30-11 | 복음 | 루카 1:1-4. 4:14-21

◎ 말씀 < 하느님 말씀의 힘 >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축제를 거행하는 모습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율법서에 적힌 하느님 말씀과 그에 대한 풀이를 듣고 감격해서 울기까지 합니다. “영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화답송)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느님 말씀이 문자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이들, 특별히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이들까지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한 대목을 인용하여 설교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이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하느님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현존하시면서,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이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치유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과 코가 되어 시대의 징표를 알아내어 복음 선포에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누구도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거나 특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는 역할만 다를 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세파에 지친 이들이 힘과 위로를 얻으며, 길 잃은 이들은 바른 길을 찾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인 이들이 해방을 맞볼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29일(화)	연중 제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380.00 \$ 1,058.00
1월30일(수)	연중 제3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32.00 \$ 32.00
1월31일(목)	성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	오후7시30분	성물방 기타수입	\$ 15.00 \$ 600.00
2월 1일(금)	연중 제3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주일학교 사제관건축	\$ 60.00 \$21,021.75
2월 2일(토)	주님 봉헌 축일 (성모심신미사)	오전10시30분	합 계	\$25,198.75
2월 3일(일)	연중 제4주일 (설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2명 성인: 198명
교무금 봉헌자	손명화(1-12월)이민석(8-9월)이대성(1-6월)윤영자. 김중순. 박문교(1-2월)최중구. 장현철. 김창영 신영후. 윤정연. 임복순. 박병수. 김승제. 최원석. 지영욱(1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우리는 왜 성모 마리아님을 공경할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모님은 특별하고 중요한 분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간청하고 성모님을 아주 극진히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가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왜 성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와 성모발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 모인 1500여명의 신자들이 성모상을 모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또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성모님을 모신 꽃가마가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5000여명의 신자들이 손을 흔들며 성모님을 반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혹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왜 이토록 성모님을 공경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에 네덜란드 로테르담교구 미헬 레메르 신부는 마리아 공경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루카 1,28)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루카 1,38)  
"내 주님의 어머니"(루카 1,43)

하느님은 인류의 구원에 협력하도록 마리아를 선택 하셨고, 이에 마리아는 "말씀하신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하며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샤벳 역시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리아의 삶에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생애 전체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뜻을 되새기며 그 뜻을 실천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가장 큰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또 신자들이 마리아를 각별히 공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창훈기자/카톨릭평화신문, [하느님과 트윗을] 번역자)

원주 교구장인 조규만 주교도 저서[마리아, 은총의 어머니-마리아 교의와 공경의 역사]에서 성모 마리아 공경은 하느님 찬송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며 성모님의 우리 신앙의 본보기요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파티마에서 성모님 이 발현한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파티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성모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톨릭이 궁금한 사람들이 묻는 질문 200가지를 엮은 책 [하느님과 트윗을]에서는 성모님의 발현은 성경에 있는 공적계시가 아니라 사적계시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께 숙명을 선택하신 성모님. 성모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호덕.요셉, 김정선.아네스의 영혼	김.크리스토퍼	생	이영숙.데레사의 가정	장경숙.로사리아
생	이강덕.시몬, 이규청.제노비아 이명호.안셀모, 고공자.벨라뎃다의 빠른 건강 회복	이나숙.데레사	생	전비아, 서안나, 김프란체스카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생	이.안셀모의 빠른 건강 회복	이안셀모가족	생	이영숙.데레사, 이종만.요셉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간  
장  
중  
지

◎말씀◎  
사랑해야 하네, 작은 것들을  
귀기울여야 하네, 가난한 것들에  
쓰다듬어야 하네, 외로운 것들을  
이제 당신의 고개를 낮추십시오  
당신의 어깨를 낮추십시오

강은교.글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b>요르단+이스라엘</b> <b>성지순례</b>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b>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